

2011년 2분기 IT산업 리스크 분석

I. IT산업 수출입 현황	4
II. 반도체 산업 동향	6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6
2. 전망 및 주요 이슈	9
III.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12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12
2. 전망 및 주요 이슈	14
IV. 휴대폰 산업 동향	17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17
2. 전망 및 주요 이슈	20

작성 : 책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이해청 (3779-6670)
hcllee@koreaexim.go.kr

< 요약 >

□ 2분기 IT 수출,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399억 달러

-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수출 호조로 4개월 연속 130억 달러帶 수출을 달성
 - 휴대폰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향상과 노키아 등 경쟁업체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 증가
- 2분기 IT산업 무역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3.1% 하락한 193.8억 달러

□ 2분기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 대비 13.7% 감소한 125.5억 달러

-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램(37.2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
-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년 대비 5.1% 성장으로 하향 수정
 -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PC 시장 성장 둔화로 전년 대비 1.2%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D램은 12.4% 하락 전망

□ (이슈) 반도체 가격 하락세,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

- 하반기 D램 미세공정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급이 크게 늘고 있어 올해 내내 D램 가격은 약세를 보일 전망
 - 일본 대지진 여파에 따른 D램 가격 단기 상승효과도 사라지고, 경기 회복도 더딘데다 수요도 살아나지 않고 있어 3분기에도 D램 시장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 D램 가격의 하락세는 2012년이 되어야 둔화될 전망
 - 올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정 전이에 따른 기술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이며, 내년에 예상된 투자가 또 집행되면 2013년부터 단가 하락 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

□ 2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전년동기 대비 7.5% 하락한 79.8억 달러

- 지난해 2분기의 86.3억 달러보다는 7.5% 하락, 전분기 75.2억 달러보다는 6.1% 증가
- 글로벌 소비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요 약세로 2011년 하반기 패널 가격은 완만한 하락 또는 횡보 상태를 유지할 전망

□ (이슈) 하반기 IT 수요가 회복되어도 LCD 회복은 더더질 전망

- 2011년 하반기 IT 수요를 이끌어갈 제품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 모바일 PC 부문
 - 따라서 판매 대수로는 IT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디바이스들의 판매만 증가하는 것이라 대형 LCD 공장 가동률에 의존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회복은 더더질 것으로 보임.
- 특히 대형 LCD 공장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LCD 패널로 생산 전환을 할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용 패널의 판매 단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분기 휴대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9.3% 증가한 69.8억 달러

- 스마트폰 수출이 32.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9% 증가하며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
- '08년 이후 글로벌 브랜드 제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11.1분기 이후 해외 생산 비중 증가세 둔화
 - ※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 : ('07) 34.9→('08) 45→('09) 58.2→('10) 64.2→('11.1Q) 63.1
- 2011년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전년 대비 13.7% 성장으로 상향 조정
 - 견조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글로벌 시장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

□ (이슈) 휴대폰 특허 소송, 선두권 기업들의 입지 다지기로 이어질 전망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휴대폰 기업에 대한 특허료 청구 및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
- 특허 공방은 사실상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한 선두권 기업들의 입지 다지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의 경우, 삼성전자가 통신기술에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선두권 업체들끼리의 연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후발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음.
 - 과거 LCD 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럴 경우 선두권 업체인 삼성전자 등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으나, 팬택 등 후발기업들의 추격은 더 힘들어 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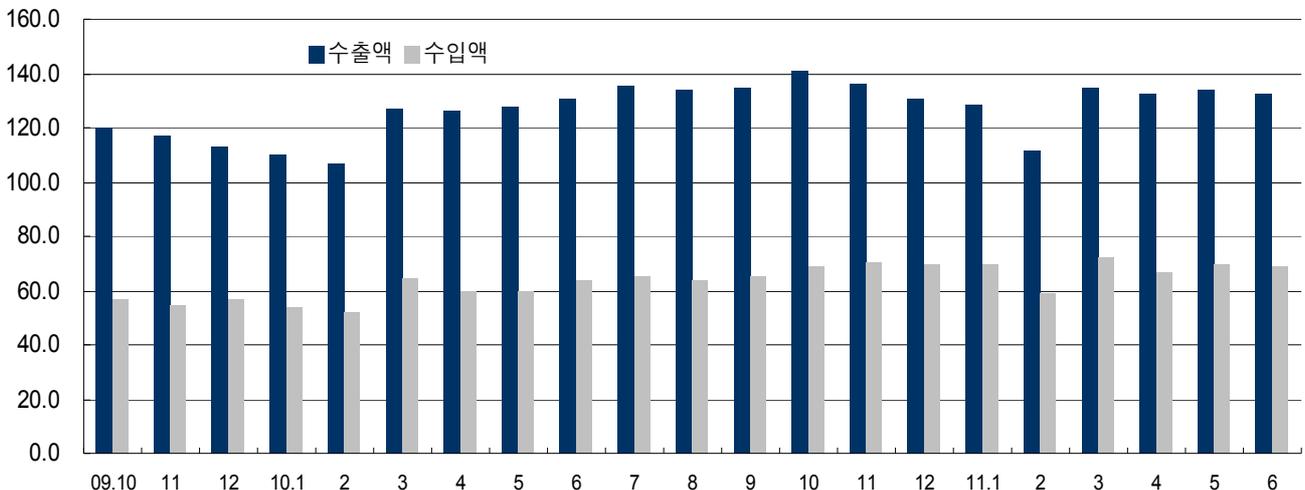
I. IT산업 수출입 현황

□ 2분기 IT 수출,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399억 달러

- 2011년 2분기 IT 수출은 지난 해 2분기 384억 달러보다 15억 달러 많은 399억 달러 기록
 - 상반기 수출액은 773.7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최대 수치이나, 지난 해 큰 폭의 수출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음.
 - * 증가율: '10년 2분기 31.3% → 3분기 21.3% → 4분기 16.3% → '11년 1분기 8.9% → 2분기 3.9%
-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수출 호조로 4개월 연속 130억 달러帶 수출을 달성
 - 휴대폰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향상과 노키아 등 경쟁업체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 증가
 - * 휴대폰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 '10년 1월 11.9% → 2월 5.6% → 3월 5.8% → 4월 31.9% → 5월 38.9% → 6월 17.9%
 -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부진으로 3개월 연속 감소
 - 디스플레이 패널은 TV, 모니터 등 전방 산업의 판매 부진과 단가 하락으로 5개월 연속 감소
- 2분기 IT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한 205.2억 달러 기록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최신 IT품목 수입 증가 영향

IT산업 월별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IT산업 분기별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 산업	IT 산업
2009년	1분기	744.2	233.7	-30.1	714.2	127.1	-33.2	30.0	106.6
	2분기	903.6	292.5	-16.2	739.7	153.7	-21.4	163.9	138.8
	3분기	947.8	332.9	-6.9	848.5	170.7	-13.3	99.4	162.2
	4분기	1039.7	350.4	29.5	928.5	168.6	10.7	111.2	181.8
	연간	3635.3	1209.5	-7.8	3230.9	620.1	-15.6	404.5	589.4
2010년	1분기	1010.9	344.1	47.2	981.3	170.3	34.0	29.6	173.8
	2분기	1202.5	384.0	31.3	1057.4	183.9	19.6	145.1	200.1
	3분기	1171.2	403.9	21.3	1056.9	194.8	14.1	114.3	209.2
	4분기	1289.5	407.5	16.3	1161.2	208.7	23.8	128.3	198.9
	연간	4674.1	1539.5	27.3	4256.8	757.7	22.2	417.3	782.0
2011년	1분기	1,310.1	374.7	8.9	1,236.2	200.6	17.8	73.9	174.1
	2분기	1,443.3	399.0	3.9	1,343.6	205.2	12.4	99.7	193.8

자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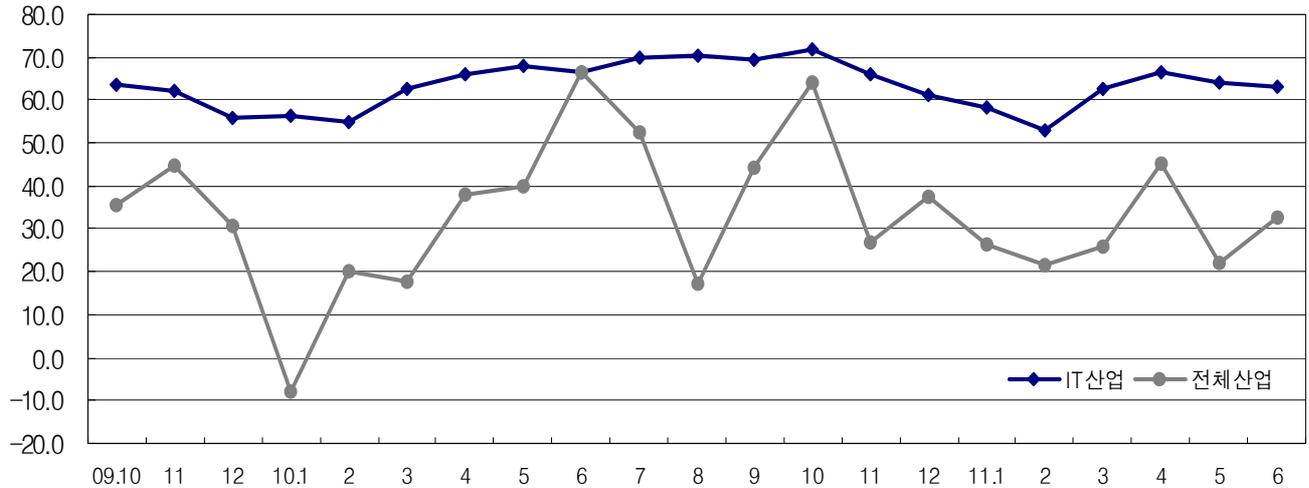
- 향후 세계 IT시장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성장에 힘입어 7% 대 성장이 예상
 - 이에 따라 스마트 제품 및 스마트 제품의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낸드플래시, 리튬 2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IT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다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유가 상승, 글로벌 부품 수급 불일치 등은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분기 IT산업 무역 흑자 전년동기 대비 3.1% 하락한 193.8억 달러

- 2분기 IT산업 무역흑자는 193.8억 달러로 전체 산업 무역흑자 99.7억 달러의 두 배 수준 기록
- 그러나 전년동기 대비 무역흑자 증가율은 '10년 1분기 63% → 2분기 44.2% → 3분기 29.0% → 4분기 9.4% → '11년 1분기 0.2% → 2분기 △3.1%로 증가율이 점차 줄어들다 2분기에 들어서서는 하락 반전

IT산업 월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II. 반도체 산업 동향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 2분기 세계 D램 반도체 매출, 전분기 대비 1.9% 감소한 81.9억 달러

-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의하면 2분기 D램 반도체 매출 규모는 81.9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9% 감소
 - D램 평균 판매가격은 1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ProMOS와 Power chip 등이 공급량을 줄이면서 전체 매출은 감소
 - 일본 대지진 여파로 공급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으로 DDR3 2Gb 제품의 고정거래가격은 1분기 대비 10% 정도 상승했지만, 현물가격이 이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전체 매출에는 변화를 주지 못함.
 - D램 기업들이 대부분 공정 전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수출이 안정화되지 못해 현물 가격은 하락
 - 2분기 D램 평균 가격이 상승한 것은 PC 업체들의 D램 재고비축에 의한 효과로,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회사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2Q11	1Q11	QoQ	2Q11	1Q11
1	삼성전자	3,373	3,306	2.0%	41.4%	39.9%
2	하이닉스	1,860	1,898	-2.0%	22.8%	22.9%
3	Elpida	1,174	1,120	4.8%	14.4%	13.5%
4	Micron	883	950	-7.1%	10.8%	11.4%
5	Nanya	386	352	9.7%	4.7%	4.2%
6	Winbond	162	159	2.1%	2.0%	1.9%
7	ProMos	103	137	-24.5%	1.3%	1.6%
8	Power chip	21	209	-89.8%	0.3%	2.5%
	기타	185	172	8.0%	2.3%	2.1%
	총합	8,147	8,301	-1.9%	100.0%	100.0%

자료: DRAMExchange, 2011년 8월

- 대부분의 D램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업체들은 양호한 실적을 거둬.
 -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을 40% 이상 차지하면서 1위를 유지. 매출액도 전분기보다 2% 상승
- 삼성전자의 경우 35나노 D램으로의 공정 전이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생산량도 늘어난 데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공정 전이에 따른 품질 저하도 심각하지 않아 반도체 가격 하락 속에서도 매출 증가를 시현.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모바일 D램과 서버용 D램을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D램 가격 하락의 폭풍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올 상반기 일본의 Elpida가 대만업체인 Power chip의 D램 공장을 인수하면서 6월부터 Power chip의 D램 생산부문은 Elpida의 파운드리로 편입
 - 이에 따라 Power chip의 2분기 D램 생산량은 Elpida 매출로 집계됨.
 - 올 하반기부터 Power chip은 D램 시장에서는 모두 철수하고, 비 D램 제품 OEM업체로 변신할 계획임.
-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41.4%로 40%를 넘어서고, 하이닉스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22.8%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한국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D램		낸드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10.1	33.0	120.6	19.6	171.8	13.8	215.1	2.1	110.0	10.1	52.8
2	33.5	117.9	19.3	144.6	13.0	195.9	2.1	92.5	10.5	73.0
3	40.4	123.0	22.8	163.9	15.1	204.1	2.4	81.9	12.4	61.5
1분기	106.9	120.4	61.7	159.2	41.9	203.6	6.6	94.1	33.0	62.1
4	41.8	97.6	24.6	150.1	16.0	201.3	2.5	77.9	12.3	30.8
5	43.9	82.6	26.1	127.5	17.6	179.1	2.4	40.2	12.9	22.9
6	43.8	74.2	25.3	103.2	16.7	141.8	2.4	48.6	13.2	27.0
2분기	129.5	84.5	76.0	125.5	50.3	171.9	7.3	55.3	38.4	26.8
7	46.2	70.8	26.4	98.5	17.8	119.6	2.4	53.4	14.1	24.3
8	47.4	64.9	27.9	90.4	18.8	116.9	2.5	26.9	14.2	23.6
9	47.7	48.6	26.6	65.8	17.5	86.9	2.2	4.3	15.3	18.4
3분기	141.3	60.8	80.9	83.9	54.1	107.3	7.1	24.6	43.6	21.9
10	45.6	32.8	24.5	37.6	16.4	56.1	2.1	△8.9	15.1	15.1
11	41.3	18.1	20.3	4.4	12.7	2.9	2.2	11.0	15.6	25.9
12	42.5	23.5	21.4	7.2	12.6	△8.9	2.5	39.9	15.4	38.5
4분기	129.4	24.8	66.2	15.7	41.7	13.6	6.8	9.7	46.1	25.9
'11.1	40.9	23.9	21.8	11.3	11.5	△16.2	2.5	20.8	13.8	36.9
2	36.5	9.2	18.8	△2.8	11	△14.7	2.2	8.3	12.2	16.4
3	44.7	10.6	23.4	2.6	12.8	△14.8	2.7	10.9	15.1	22.2
1분기	122.1	14.2	64.0	3.7	35.3	△15.8	7.4	12.1	41.1	24.5
4	41.6	△0.4	22.2	△9.6	12.5	△22.2	2.9	13.9	13.7	11.5
5	41.8	△4.7	22.1	△15.3	12.5	△28.7	3.2	34.7	14.3	10.8
6	42.1	△3.9	21.3	△15.8	12.2	△27.0	2.4	1.1	15.2	14.8
2분기	125.5	△3.1	65.6	△13.7	37.2	△26.0	8.5	16.4	43.2	12.5

자료: 지식경제부

주: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2. 전망 및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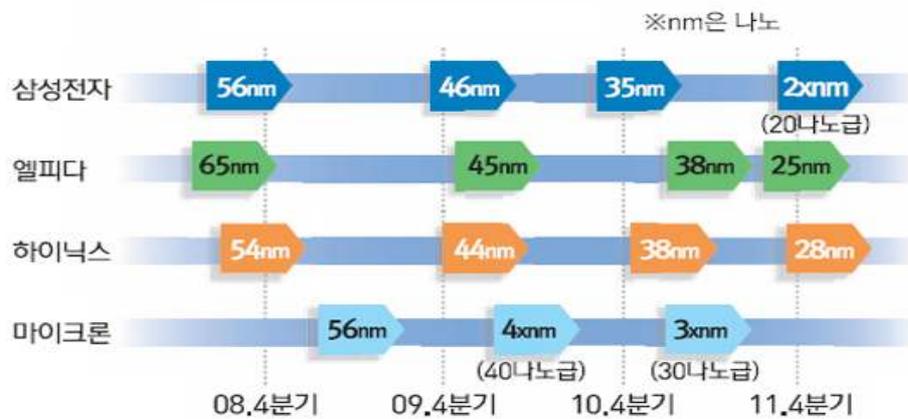
□ '11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년 대비 5.1% 성장으로 하향 수정

- Gartner 등 시장조사기관은 2011년 반도체 세계 시장 성장률을 전년 대비 5.1% 성장할 것으로 하향 수정
 - 지난 일본 대지진 여파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전년 대비 4.6% 성장에서 6.2% 성장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일본 대지진 이후로도 시장 회복이

늦어지자 다시 5.1% 성장으로 하향 조정

- 특히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PC 시장 성장 둔화로 전년 대비 1.2%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D램은 12.4%의 감소 전망
- 하반기 D램 미세공정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급이 크게 늘고 있어 올해 내내 D램 가격은 약세를 보일 전망
- 과거 가격 하락 시기는 증산을 통한 치킨게임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공정 전이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낮추기로 경쟁 양상이 변화된 상황

메모리 업체별 공정 전환 시기



자료: 서울경제, 2011, 7.

- 업계는 공정 전이와 함께 나타나는 수출 저하를 끌어올리는 것이 곧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공정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의 경우 경쟁업체보다 공정 전이 속도 및 품질에서 앞선다는 평가

하반기 국내 업체의 반도체 시장 대응 전략

업체	하반기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리반도체 사업에서 3분기에 미세공정 전환을 가속화해 업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 시스템LSI 사업에서 고성능 모바일기기 수요 호조에 따라 듀얼코어 AP와 이미지센서 등 고부가 제품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신규 거래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 <p>※ 삼성전자는 올해 메모리반도체 5조 8,000억 원, 시스템반도체 4조 2,000억 원 등을 합해 총 10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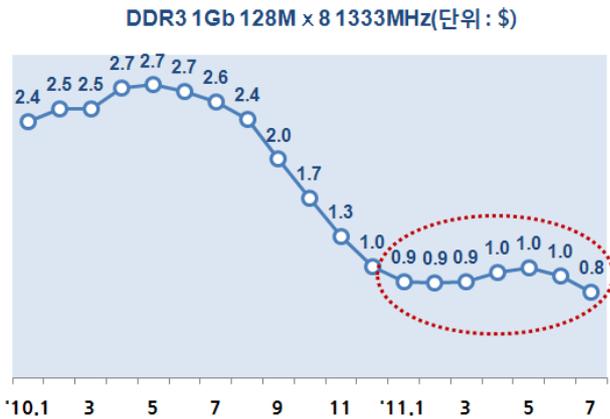
- '11.1Q 생산을 시작한 30나노급 D램 제품 비중을 연말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2분기 말 기준 70% 수준인 모바일·그래픽·서버용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도 계속 유지
- 낸드플래시 공정전환을 가속화해 2분기 말 현재 50% 수준인 20나노급 비중을 연말까지 70% 중반까지 확대하고, 차세대 20나노 제품도 하반기 양산을 시작

자료: NIPA, 지식경제부(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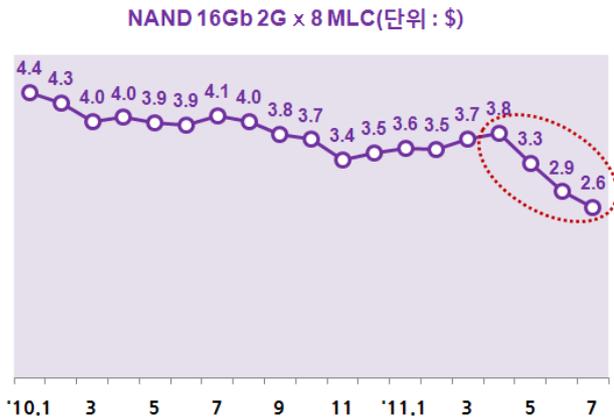
□ 반도체 가격 하락세,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

-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2분기 소폭 상승 뒤 7월 들어 하락세 지속
 - 7월 평균 D램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68.9%, 전월 대비 16.3% 하락한 0.8달러를 기록
 - D램 가격 하락은 북미·유럽지역에서의 PC 판매 부진과 이에 따른 재고 증가가 가장 큰 원인
 - 낸드플래시 7월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5.0%, 전월 대비 약 8.4% 하락한 2.6달러를 기록, '11.4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 시현
 - 낸드플래시의 최대 수요처인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지면서 제조사들의 재고량이 늘어난 것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D램 가격 추이



낸드플래시 가격 추이



자료: DRAMeXchange

- D램 익스체인지 등 시장조사기관들은 D램 산업의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인하가 3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일본 대지진 여파에 따른 D램 가격 단기 상승효과도 사라지고, 경기 회복도 더딘데다 수요도 살아나지 않고 있어 3분기에도 D램 시장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 대만 업체 등 하위 업체의 감산이 임박함에 따라 4분기를 전후해 가격 안정화 기대
- 한편, 아이서플라이는 **D램 가격의 하락세가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1분기 D램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14.2% 하락했지만, 2분기에는 하락폭이 12%, 3분기에는 9%, 4분기에는 4%까지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내년 1분기에는 하락폭이 1%대로 되면서 내년 말까지 이 수준이 지속돼 평균 가격 하락폭은 3~4%대에 머물 것으로 분석
 -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것은 제조 공정에서 기술 이전이 더뎠고 있기 때문으로, 내년에 투자금액이 23% 늘게 되면 2013년부터는 단가 하락 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

III.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 2분기 LCD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6% 증가매출액은 16% 감소

- 시장조사기관 DisplaySearch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분기 대형 TFT-LCD 패널 출하량은 총 1억8,080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6%, 전분기 대비로는 11% 증가
 - 매출액은 19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 하락, 전분기 대비로는 11% 증가
- 애플리케이션별로는 태블릿 PC용 패널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88%, 전년동기 대비 38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 모니터와 노트북 PC용 패널 출하량은 각각 전분기 대비 3%, 11% 증가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모두 동일한 수준이었고, TV 패널은 전년동기 대비 4% 하락함.

애플리케이션별 대형 TFT LCD 패널 출하량

단위: 백만대

Application	출하량			성장률	
	Q2'10	Q1'11	Q2'11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LCD 모니터	50.9	49.4	51	3%	0%
노트북 PC	48.9	44	48.9	11%	0%
소형 노트북	9.1	8.7	9.2	5%	1%
태블릿	3.2	8.3	15.6	88%	386%
LCD TV	55	49.4	52.7	7%	-4%
공공 디스플레이	0.4	0.5	0.7	42%	54%
기타	2.7	2.8	2.8	1%	5%
합계	170.2	163.1	180.8	11%	6%

자료: DisplaySearch

- 매출액 기준으로도 태블릿 PC용 패널이 전분기 대비 64%, 전년동기 대비 259% 증가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 그러나 태블릿 PC와 공공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니터와 노트북 PC, TV용 패널은 전년동기 대비 모두 감소를 나타냄.

애플리케이션별 대형 TFT LCD 패널 매출액

단위: 십억 달러

Application	매출액			성장률	
	Q2'10	Q1'11	Q2'11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LCD 모니터	4.50	3.50	3.80	7%	-16%
노트북 PC	3.00	2.10	2.30	13%	-22%
소형 노트북	0.30	0.30	0.30	5%	-1%
태블릿	0.30	0.60	0.90	64%	259%
LCD TV	14.30	10.50	11.40	8%	-20%
공공 디스플레이	0.20	0.20	0.20	28%	20%
기타	0.30	0.30	0.30	1%	-1%
합계	22.90	17.40	19.30	11%	-16%

자료: DisplaySearch

□ 2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전년동기 대비 7.5% 하락한 79.8억 달러 기록¹⁾

- 2분기 패널 수출은 79.8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의 86.3억 달러보다는 7.5% 하락, 전분기 75.2억 달러보다는 6.1% 증가

1) 부분품 포함 수치

- 패널 가격의 안정세 돌입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등의 경기 불안 지속, '10년 수출 기저 효과 등의 영향
- 중국(홍콩포함)은 3D·LED 패널 등을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회복 지연 중인 EU와 유럽 지역 생산 거점인 동유럽 및 북미 지역의 생산 거점인 중남미의 수출은 감소
- 수출 비중은 매우 낮지만, 인도와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금액	25	23	28	28	29	29	32	32	29	29	27	27	25.6	22.6	27	26.3	27.1	26.4
증감률	100	56	46	40	38	28	28	25	8.9	8.7	9.5	0.8	4.0	△3.2	△4.8	△7.3	△6.8	△8.2
	'1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 1분기			2분기		
금액	76.3			86.3			92.4			82.7			75.2			79.8		
증감률	63.0			35.5			20.3			6.3			△1.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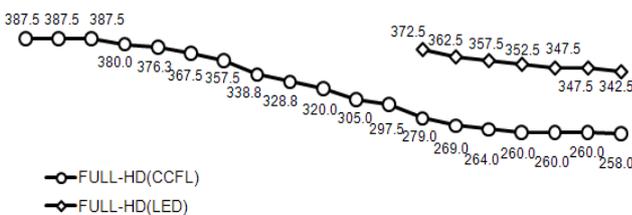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주: 부분품 포함

2. 전망 및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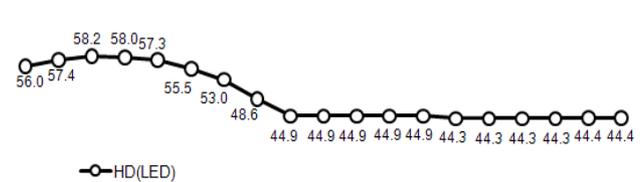
□ 하반기 패널 가격,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턴어라운드하는 어려울 전망

- '11년 6월 보합세를 보였던 LCD TV 패널 가격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 선진 시장 수요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7월 재하락
- 다만, 태블릿PC 등 신규 시장 확대 등으로 노트북 패널 가격 등은 보합세 유지

LCD TV 패널-Full HD



노트북 패널-LED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자료: Witsview, 201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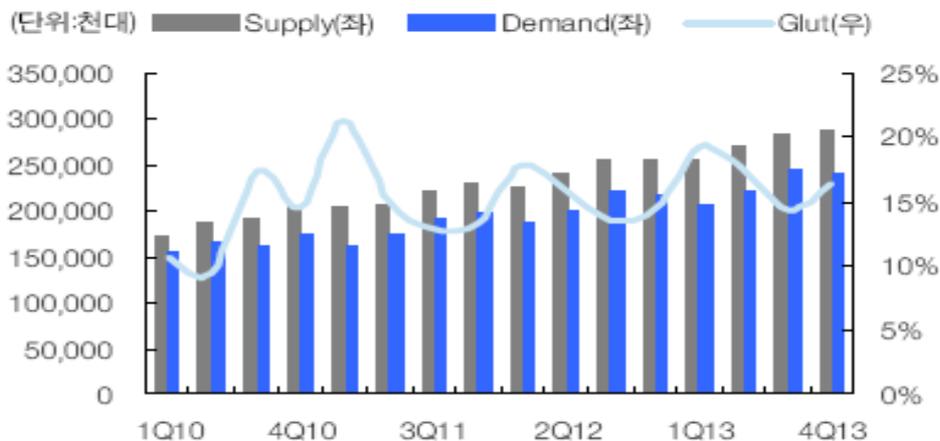
주: LCD TV 패널(32인치~47인치) 평균, 노트북 패널(10.1인치~17.3인치) 평균

- 계절적 비수기, 선진 시장 경기 회복 둔화, 공급 과잉 등 시장 회복에 부정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여전
 -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대비 세트 업체들의 패널 재고 축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트업체들이 보수적인 재고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실적 개선에는 부정적
 - 디스플레이 선두 그룹인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LED TV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태블릿PC 패널 등 신제품 적용 패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유럽 등 선진 TV 시장의 수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디스플레이 시장 실적 개선은 다소 더디게 진행 중
-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감산, 투자 축소 등 수급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화 노력 중
 - LG디스플레이, CMI(대만) 등은 가동률 조정과 함께 '11년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보다 20~30% 감소함으로써 공급과잉 완화 중

□ 하반기 IT 수요가 회복되어도 소형 디바이스 중심이어서 LCD 회복은 더디질 전망

- 7월말 기준 주요 패널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약 70% 후반~ 80% 초반으로 패널 수급상 공급은 안정적인 기조
- 그러나 글로벌 소비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요 약세로 2011년 하반기 패널 가격은 완만한 하락 또는 횡보 상태를 유지할 전망

LCD 패널 수요 공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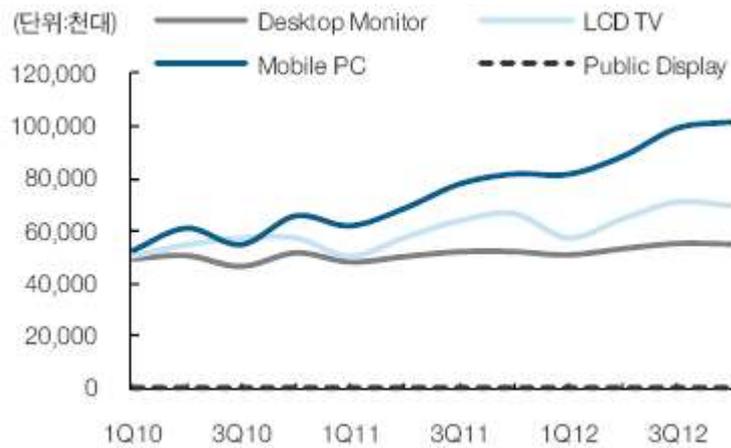
자료 : DisplaySearch

- 2011년 하반기 IT 수요를 이끌어갈 제품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 모바일 PC 부문

- 따라서 판매 대수로는 하반기에 상당한 IT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디바이스들의 판매만 증가하는 것이라 대형 LCD 공장 가동률은 크게 높이기 어려울 전망**

※ LCD 제조 공정은 대형 LCD 패널을 제작해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형태라 **대면적 패널의 수요가 느는 것이 중요함**. 소형 패널은 전체 판매량이 늘어도 전체 생산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애플리케이션별 패널 판매 전망



자료 : DisplaySearch

-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통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에는 하반기에도 TV와 데스크탑 모니터는 부진한 수요를 보일 전망
 - 이에 따라 중소형 LCD 공장은 100% 가동률을 기록하겠지만, 대형 LCD 공장들은 선두업체도 풀가동을 하기 어려울 전망
 - 특히 대형 LCD 공장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LCD 패널로 생산 전환을 할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용 패널의 판매 단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IV. 휴대폰 산업 동향

1.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

□ 2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 전년동기 대비 11.3% 성장

- IDC에 의하면 2011년 2분기 세계 휴대폰 출하량은 3억 6,540만대로 2010년 2분기 3억 2,840만대에 비해 11.3% 성장
 - IDC의 시장 성장 예상치였던 13.3%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전 분기의 3억 7,180만대 출하량보다도 1.7% 하락
-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피쳐폰의 영향으로, 피쳐폰 출하량은 2010년 2분기에 비해 4% 줄어듦.
 - 피쳐폰 감소세는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두드러짐.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 영향.
- 피쳐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스마트폰의 가파른 성장 덕분

2011년 2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대, %)

순위	공급 업체	2Q 2011		2Q 2010		전년동기비 증감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노키아	88.5	24.2%	111.1	33.8%	-20.3%
2	삼성전자	70.2	19.2%	63.8	19.4%	10.0%
3	LG전자	24.8	6.8%	30.6	9.3%	-18.9%
4	애플	20.3	5.6%	8.4	2.6%	141.8%
5	ZTE	16.6	4.5%	12.2	3.7%	36.0%
6	기타	145	39.7%	102.3	31.2%	41.7%
합계		365.4	100.0%	328.4	100.00%	11.3%

자료: IDC, 2011년 7월

- 중국시장에서는 아이폰4의 영향으로 애플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CSL(홍콩), Nexian(인도네시아), Q-Mobile(베트남), Wellcom(태국)과 같은 자국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판매량을 늘림.
-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저가폰 시장에서는 중국 제품의 확산이 두드러졌

으며, CEMA(Central and Eastern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중국 제품들의 잠식이 계속 진행됨.

- 스마트폰의 핵심 성장 지역인 북미 시장 외에 중남미 시장도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저가 스마트폰에 의해 시장이 크게 성장
- 노키아는 점유율 1위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3%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이 24.2%로 하락
 - 전통적으로 노키아의 텃밭이었던 중국과 유럽에서 고전하면서 점유율이 크게 줄었으며, 연내에 윈도우폰 7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어야 점유율 회복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삼성전자는 갤럭시S2 등 안드로이드폰 호조로 출하량을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시키며 점유율 19.2%로 1위 노키아와의 격차를 줄임.
 - LG전자도 옵티머스 스마트폰 덕분에 시장점유율 3위를 지키기는 했으나, 피쳐폰 시장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판매 속도는 빠르지 않아 애플에게 3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음.
- 애플은 출시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아이폰4로 전년동기 대비 141.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점유율 4위를 유지.
 - 중국의 ZTE 역시 피쳐폰 외에 블레이드, 레이서, 리브라, 스케이트, 아밍고 등 다양한 안드로이드폰을 내놓으면서 출하량을 전년동기 대비 36% 늘림.

□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년동기 대비 76.3% 성장

- Strategy Analytics에 의하면 2011년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 1,000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76.3% 성장
 - 새로 판매되는 휴대폰 3대 가운데 1대는 스마트폰이라는 수치
-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2,030만대를 판매하며 시장점유율 18.3%로 1위를 유지
- 삼성전자는 출하량 1,920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519.1% 성장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도 17.5%로 올라 애플을 바짝 추격
-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업체의 출하량은 모두 2,540만대로 시장점유율 23.1%를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1위에 오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대, %

순위	공급업체	'11.1Q		'11.2Q	
		출하량	증감률	출하량	증감률
1	Apple	18.6	111.4%	20.3	141.7%
2	삼성전자	12.6	366.7%	19.2	519.4%
3	Nokia	24.2	12.6%	16.7	-29.8%
4	RIM	13.8	30.2%	12.5	11.6%
5	HTC	9.6	220.0%	12.1	132.7%
6	LG전자	4.1	1,266.7%	6.2	588.9%
전체		103.0	85.9%	110.0	76.3%
국내 업체*		16.7	456.7%	25.4	535.0%
세계시장점유율		16.2%	(3위)	23.1%	(1위)

자료 : SA 2011.7

주*: 국내업체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추정치)의 출하량 합산

□ 2분기 휴대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9.3% 증가한 69.8억 달러 기록²⁾

- 2분기 휴대폰 수출은 69.8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의 54억 달러보다 29.3% 증가
 - 전 분기 65.3억 달러보다는 7% 증가
- 스마트폰 수출이 32.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9% 증가하며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
 - 피쳐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5.6% 감소했으나, 스마트폰은 329%, 부분품은 14.4% 증가하며 휴대폰 수출을 주도
- 스마트폰 등 하이엔드 제품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이 단가 개선 및 수출 증가에 기여
- ※ 휴대폰 수출단가 추이() : ('09) 212.5→('10.상) 185.4→(하) 225.7→('11.1~6월) 296.7
- '08년 이후 제품 현지화에 따른 글로벌 브랜드 제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11.1분기 이후 해외 생산 비중 증가세 둔화
- ※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 : ('07) 34.9→('08) 45→('09) 58.2→('10) 64.2→ ('11.1Q) 63.1

2) 부분품 포함 수치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10.4	5	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휴대폰 (부분품 포함)	17.6	17.6	18.8	18.9	18.8	21.1	26.5	26.8	22.4	23.8	19.8	21.7	23.2	24.4	22.2
	△27.9	△29.4	△25.0	△27.7	△17.6	△16.1	2.9	8.9	21.7	11.9	5.6	5.8	31.9	38.9	17.9
스마트폰	2	3	5	5.4	6.2	8.3	10.8	11.8	10.2	9.5	9.2	8.2	12.2	12.5	8.2
	49.7	134.3	368.9	376	378.1	560	268.1	240.5	349.2	452.8	396.5	260	517.7	323.4	62.3
피쳐폰	8.7	6.9	7	5.8	4.7	4.3	7	6.7	5.1	4.9	3.9	4.3	3.2	3.7	5.4
	△41.3	△56.3	△55.9	△60.8	△59.6	△66.7	△45.0	△45.3	△40.2	△47.4	△56.8	△57.0	△63.4	△45.6	△22.2
부분품	6.9	7.8	6.8	7.7	7.8	8.5	8.8	8.4	7.1	9.4	6.7	9.1	7.8	8.2	8.6
	△16.0	△1.7	△17.1	△24.7	△20.5	△22.4	△13.9	△6.5	△6.7	△7.8	△14.7	11.7	13.2	5.7	26.1
전체	10. 2분기		3분기			4분기			11. 1분기			2분기			
금액	54		58.8			75.7			65.3			69.8			
증가율	△27.4		△20.6			10.0			8.1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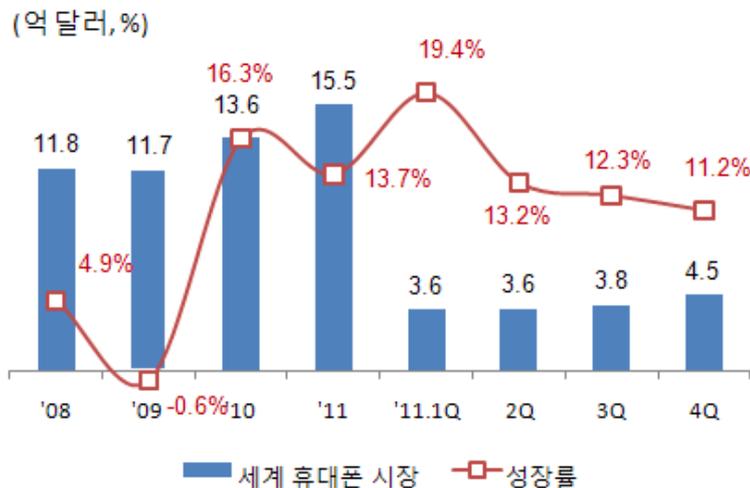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2. 전망 및 주요 이슈

□ 2011년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전년 대비 13.7%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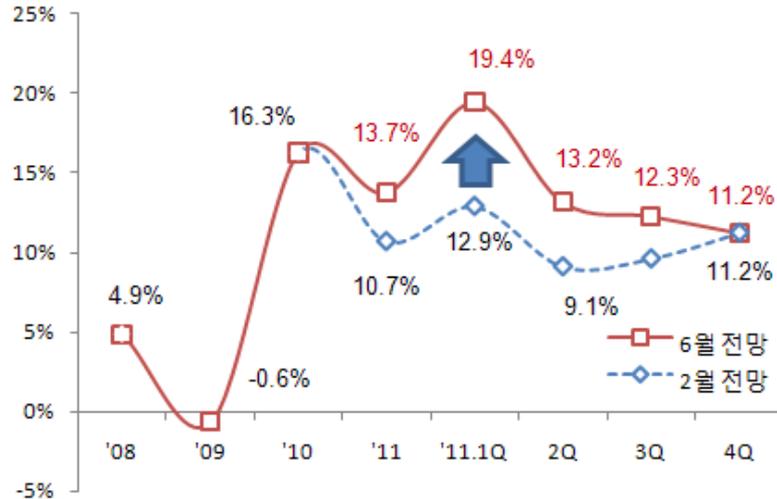
- 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는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 성장률을 지난 2월 10.0%에서 10.7%로 조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13.7%(출하량 기준)로 상향 조정
 - 최근 스마트폰의 높은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자료: SA, 지식경제부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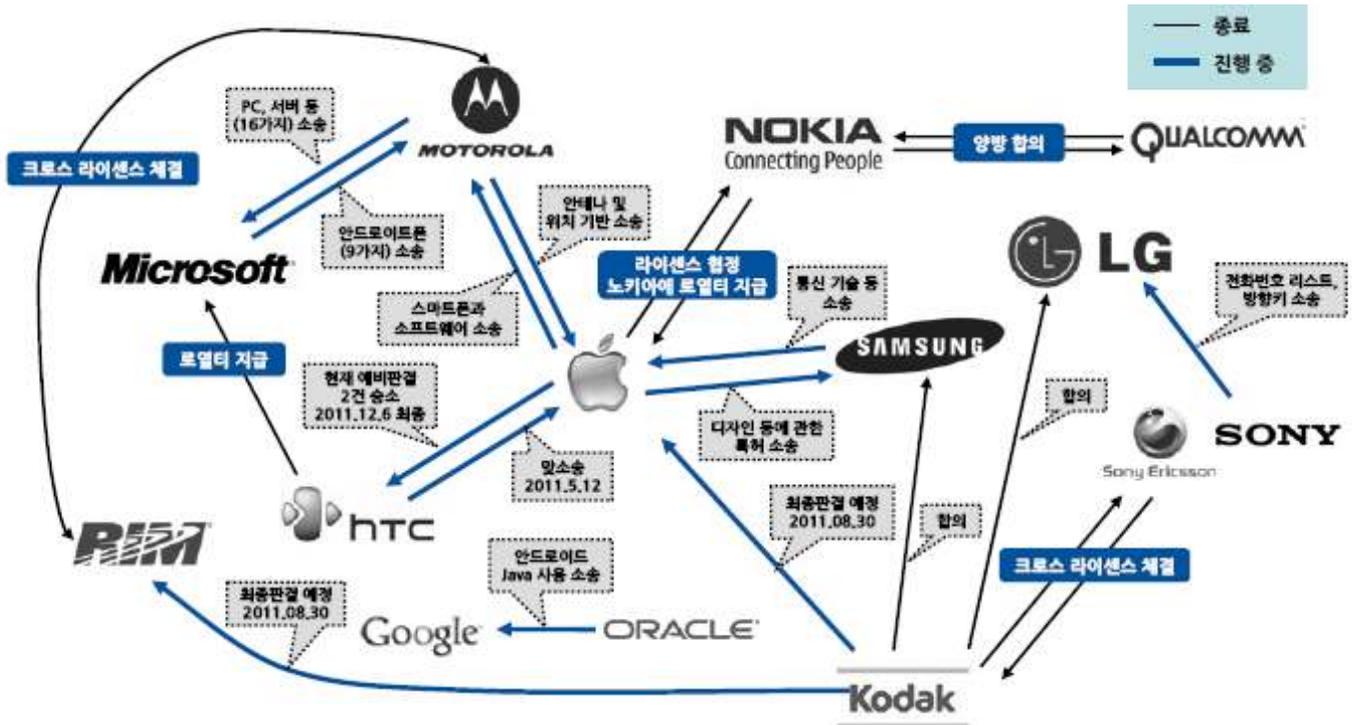


자료: SA, 지식경제부

□ 늘어나는 스마트폰 특허 소송, 한국 기업들에겐 약인가 독인가?

- 최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특허 소송이 세계적으로 급증
- 지난 4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자사의 아이폰의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6월에는 국내 법원에도 제기
-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만 스마트폰 업체인 HTC에 대해 안드로이드폰에 탑재된 메일 송수신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이에 대해 HTC는 제품 1대당 5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합의
 -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삼성전자에도 비슷한 내용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품 1대당 10달러 이상의 특허료 청구에 대한 협상 진행중
- 한편,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월 15일 대만의 HTC가 애플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림.
- 이밖에도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사용한 데 대해 구글을 상대로 61억원 상당의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안드로이드 폰을 제조하는 회사에도 각각 제품 1개당 15~2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음.

세계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 진행 상황



자료: 언론 종합, 대우증권

- 최근 이와 같은 특허료 청구 및 관련 소송이 봇물처럼 증가한 것은 안드로이드 폰의 급성장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반격이라 할 수 있음.
-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OS(운영시스템)으로 어느 제조사든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가 타사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이를 이용해 휴대폰을 만든 제조사와 구글 모두에게 특허료를 요구 가능
- 이러한 공세의 선봉에 선 것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는 휴대폰 1개당 20~30 달러의 보상을 해야 해, 제조사 전체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끼침.
- 한편, 애플의 경우는 이와는 별도로 HTC, 삼성전자 등 제조사를 상대로 디자인 유사성, 유저인터페이스(UI) 등에 대해 특허 소송을 진행중.
 - 컴퓨터 회사로 성장해온 애플은 디자인 및 OS 운영에 관계된 유저인터페이스

스(UI) 등에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휴대폰 통신 특허는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음.

- 이렇게 늘어나는 특허 공방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선두권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두터워질 것**이란 전망이 있음.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의 경우, 삼성전자가 통신기술에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선두권 업체들끼리의 연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후발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
 - 이럴 경우 선두권 업체인 삼성전자 등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으나, 팬택 등 후발기업들의 추격은 더 힘들어 질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애플은 통신업체 노텔의 기술 특허를 약 45억 달러(한화 4조8000억원) 정도에 인수했는데, 2009년 파산한 노텔의 6000개 이상의 통신 특허 가운데에는 특히 4G 롱텀에볼루션(LTE) 기술 표준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많아 애플 역시 통신 특허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
-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소프트웨어사들의 특허 소송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낮추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평가
 - 국내 제조사들은 하드웨어에 대한 특허는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요구하는 특허료를 고스란히 내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
 - 특히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1대당 15달러 정도의 특허료를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자체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윈도우7의 한 카피 가격을 15달러 선에서 제시하고 있어 특허를 빌미로 윈도우 확대를 하려는 **다중 포석**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최근의 특허 공방으로 인해 **국내 제조사들의 특허 비용 증가**라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선발/후발 주자의 위치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음.
 - 다만, 국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앞으로 이와 같은 특허 전쟁이 가속화될 경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